

본 회 창립 12주년 自祝 리셉션 열려...



▲ 談笑하는 吳滋福 장관(사진左)과 柳纘佑 회장

본 회 창립 12주년을 기념하는 自祝 리셉션이 3월 30일 육군회관에서 吳滋福 국방부장관을 비롯하여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등 관계관과 회원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본 회 柳纘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방부장관 취임 축하 인사와 함께 새 장관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방산업계에 부여된 時代的 使命을 다할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 방산업계가 가일층 분발하여 안으로는 技術蓄積과 經營의 內實化를 다지는 한편, 對北傀 絶대우위의 自主國防力 確保에 總力을 傾注하기 위해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역설하였다.

이에 대해 吳滋福 장관은 방산업체 대표 및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오늘의 방위산업이 있기까지 어려운 기업 경영여건하에서도 利潤追究에 앞선 召命意識과 피땀어린 노력의 결실이 있었음을 實感하였다고 披瀝하였다.

이어 방위산업이 안고 있는 당면 문제점 타개를 위해 방위산업 육성기금 增額造成에 의한 자금지원 확대와 關稅法, 原價計算 및 契約制度의 개선과 內需物量의 증대책 강구등 다각도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闡明하였다.

연구개발 토의회 개최

3월 25일 본 회 회의실에서 起亞起工의 17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연구개발 토의회가 열렸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韓·美간 방산물자의 공동개발사업 추진방향등을 모색하고자 개최된 이번 토의회는, 「韓·美 공동연구개발에 따른 政府意志」(국방부 국산화개발과장)와 「韓·美 공동연구개발 추진방향」(國科研 김훈섭 박사)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國科研·防振會 제1차 협력회의 개최

방산물자 연구개발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본 회 회원사와 국방과학연구소간에 상호협력회의가 3월 26일 忠南 도고 칸츄리 클럽에서 열



렸다.

이 날 국방과학연구소측은 「연구소와 방산업체간 당면문제」(손운택 박사)와 「업체주도 사업수행상의 문제점」(황해웅 박사)에 대해 발표하였고, 본 회에서는 曹正善 진흥부장이 「방산업계 건의 및 요망사항」에 대해 발표하

였다.

특히 토의사항중 「업체주도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단일 과제로 선택하여 6월말이나 7월초순에 국방부, 국과연, 방산업체 및 기타 관련기관이 함께 토의회를 갖기로 하였다.

제 1 차 韓 · 오레곤 방산위원회 개최



韓 · 오레곤 방산위원회 ▶
제 1 차 회의

韓 · 오레곤 방산위원회 제1차 회의가 3월 15일 본 회 회의실에서 兩側 대표와 관련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한국측 공동의장인 본 회 柳俊馨 상근부회장은 회의 개막을 선언하고, 환영사를 통해 人事말과 함께 1987년 11월에 美國 오레곤州 포트랜드市에서 개최되었던 제1차 韓 · 오레곤 산업협력회의를 통해 양국간의 협력적인 분위기가 고양되었음을 밝혔다.

이어 미국측 공동의장인 Ken E. Beckerich 미국 방위준비협회 오레곤支部長은 환영인사와 더불어 성공적인 韓 · 오레곤 산업협력회의를 통해 양국 업체간의 사업교류 기회가 현저히 확대되었음을 언급하면서, 1988년도에 제2차 韓 · 오레곤 산업협력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韓 · 오레곤 산업협력회의의 및 상담추진 결과를 확인하고 韓 · 오레곤 방산위원회(KODIC) 운영방침을 토의하였다.

또한 제2차 韓 · 오레곤 산업협력회의를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美 오레곤州 포트랜드市에서 본 회와 오레곤支部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제2차 韓 · 오레곤 방산위원회 개최일정을 제2차 韓 · 오레곤 산업협력회의의 기간중 열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회의의 방산위원들은 3월 16일 판문점 및 제3땅굴을 견학하며 우리 안보 현실에 대한 認識을 새로이 하였으며, 3월 14일에는 롯데호텔에서 리셉션을 가졌다.